

Qualifications for Elders 7th August, 2016

(1 Timothy 3:1-7; Exodus 18:13-26; Luke 10:29-37)

We looked at this passage (1 Timothy 3:1-7) about this time last year as we prepared for an election for new elders. And it is good to look at it again this morning, not just because we hope to have a further election for elders towards the end of this year but also because it reminds us to treat those whom God has called to be elders - to exercise spiritual oversight of this church - with respect (and affection) and to pray for them.

작년 이 맘때쯤 장로 선출을 준비하며 이 구절 (디모데전서 3:1-7) 을 살펴 보았었습니다. 올해 말에 장로 선거가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로로 부르신 분들 - 이 교회를 영적으로 관리(감독) 할 사람들 - 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 시켜주기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구절을 또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A Noble Task (선한 일)

Elders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 for the Bible holds their office in high esteem: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If anyone sets his heart on being an overseer, he desires a noble task" (v.1). The Greek word for "overseer" is episkopos, which is sometimes translated as "bishop". In the New Testament - in Acts 20:17-38, for example - the words for elder (presbuteros) and bishop (episkopos) are used interchangeably. This is true in 1 Timothy as well, since Paul later calls the overseers "elders" (1 Timothy 5:17). From Scripture it is clear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rank among the elders of the church. Hierarchical forms of church government go beyond the teaching of Scripture. The biblical pattern for the church is spiritual governmental by a plurality of elders. All the overseers are brothers in ministry. As we shall see lat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eaching elders (sometimes known as pastors or ministers) and ruling elders. But the difference lies only in their function, not in their authority. A minister is not superior in rank to a ruling elder.

성경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높이 여기기 때문에 그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1 절). 그리스어로 감독은 "에피스코포스"이고, 때론 "주교"로 번역 됩니다. 신약에서는 - 예를 들어 사도행전 20:17-38 에서는 - 장로를 뜻하는 단어 (presbuteros) 와 주교를 뜻하는 단어 (episkopos) 가 서로 대체 가능하게 쓰입니다. 바울이 나중에는 감독을 "장로" 라고 칭하기 때문에 이것은 디모데전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딤후 5:17). 성경을 보면 교회의 장로들 사이에는 지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교회의 계급체제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 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여러명의 장로들이 영적으로 교회를 관리하는 것 입니다. 모든 감독들은 사역 안에서 형제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가르치는 장로 (목사나 성직자로 알려진 직분)와 관리하는 장로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다른점은 그들의 역할에 있는 것이지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직자의 위치는 관리하는 장로의 위치보다 높지 않습니다.

The point of Paul's trustworthy saying is that the work of an overseer is honourable. It has a long and rich tradition among the people of God. The first elders were appointed by Moses to teach and to judge the children of Israel, as we saw in Exodus 18.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God's people were represented and governed by elders who sat in the city gates and taught in the synagogues, in the later Old Testament times. The same was true in the New Testament. On their missionary journeys Paul and Barnabas and Paul and Silas appointed elders in all the churches. So by the time Paul wrote to Timothy, the elder was a well-established officer in the church. The work of an overseer is good work involving the oversight of God's people. By ruling and teaching, elders supervise the spiritual life of the church. And if such oversight is good work, then it is also good for men to seek it. So godly men should strive to become elders in the church. This does not mean that eldership should be an ambition.

바울의 이 미쁘다는 말의 요점은 감독의 일은 영광스럽다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내려온 오래되고 깊은 전통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봤듯이 첫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Qualifications for Elders 7th August, 2016

(1 Timothy 3:1-7; Exodus 18:13-26; Luke 10:29-37)

가르치고 판단하기 위해 모세가 세웠습니다. 구약에서는 시내의 문 앞에 앉아있는, 회당에서 가르치던 장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관리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는 같습니다. 선교를 다니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실리아는 모든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는 이미 장로는 교회에 자리를 확실히 잡은 직분이었습니다. 감독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 하는 것을 포함한 선한 일입니다. 관리하고 가르침으로서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면 교회의 남자분들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장로의 자리가 야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No one ever decides to become an officer of the church on his own. That is for the church to decide, led by the Holy Spirit, following guidelines set forth in this passage and also Titus 1:5-9 and 1 Peter 5:1-4. Yet the outward call of the church is always matched by the inward call of the man. God calls and the church confirms that call. Serving as a minister or elder can be a worthy aspiration without becoming a blind ambition. Why does the Bible bother to say that an overseer does good work? Possibly because the task is so daunting - shepherding the flock Christ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Yet it is a noble work which carries its own inherent dignity and attractiveness, because it is perform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rings about the welfare of the whole church. Oversight is good work, but only if you are qualified for it. What are God's requirements? Paul lists them in vv. 2-7. Will any man meet all of these requirements? In some of these areas he will likely need to develop and grow. Holding to the conviction of elders being enabled and gifted by God does not by-pass a man's responsibility to work hard and critically on himself, seeking to improve in all areas applicable to his eldership.

그 누구도 교회의 임원이 되겠다고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구절과 디도서 1:5-9, 그리고 베드로전서 5:1-4 에 적혀있는 기준에 따라 교회가 결정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르심은 그사람의 내적 부르심과 항상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는 그 부르심을 확정합니다. 목사나 장로로서 섬김은 눈먼 야망이 되지 않고 의미있는 열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감독은 선한 일을 한다고 언급하였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사신 성도들의 목자 역할을 한다는 일이 너무 벅차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일이고 교회 전체의 복지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고유의 존엄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조건들을 2-7 절에 나열했습니다.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어느 부분에서는 성장하고 자라야 할 것입니다. 장로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열심히, 또 비판적으로 노력하고 장로의 자리에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회피하면 안됩니다.

2. The Elder's Morals (장로의 도덕성)

The first qualification encompasses all the others: "the overseer must be above reproach". The integrity of an elder must be beyond question. He cannot be sinless, but must commend the Christian way of life by his own mature qualities and exemplary behaviour.

Qualifications for Elders 7th August, 2016

(1 Timothy 3:1-7; Exodus 18:13-26; Luke 10:29-37)

첫 자격요건이 다른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장로의 진실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들의 성숙함과 본이 되는 행동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To be above reproach, an elder must be “the husband of but one wife”. This does not prohibit bachelors from serving as elders. Remember that Paul himself was single and commended singleness to others as an opportunity for greater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1 Corinthians 7:17). What Paul probably means is that elders must be morally accountable for their sexuality. In the world of Paul’s day, marriage was undermined by frequent divorce, widespread adultery and rampant homosexuality. How should the church take its stand against such sexual immorality? God wants the leaders of the church to be living examples of biblical marriage - one man and one woman in a love covenant for life.

책망할 것이 없기 위해서 장로는 “오직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혼자는 장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더 큰 기회로서 독신을 권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고전 7:17). 아마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말은 장로들은 그들의 성적 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일겁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잦은 이혼, 보편화된 간음 그리고 걸잡을 수 없는 동성애 때문에 결혼이 훼손 돼 있었습니다. 이런 음행에 맞서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사랑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의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The next several qualifications have to do with the elder’s judgment. He must be “temperate, self-controlled and respectable”. “Temperate” means sober-minded, or vigilant. A vigilant elder notices spiritual needs and warns of spiritual dangers. The word “self-controlled” has to do with decision-making. Men who make vital decisions about the ministry of the church must be prudent. They must have balanced judgment. When elders do not weigh their decisions carefully, the church is vulnerable to all the latest trends in ministry and theology. Then elders are to be “respectable” - orderly and well-mannered. Among other things, this applies to their drinking habits. Although he need not be a teetotaler, a respectable elder is “not given to drunkenness.” The Greek philosophers sometimes used the word for “drunkard” to refer to violence, like a drunken rage. What comes next, therefore, is not surprising: an elder is “not violent but gentle”. Men who are verbally, physically or emotionally abusive cannot be trusted to tend God’s sheep. Instead elders must be “gentle” - gracious, kindly, forbearing and considerate. Of course, an elder must be firm when he rebukes sin. But an elder must be gentle. He must live among God’s people like a tender shepherd. He must be sympathetic with the weak and compassionate to the wounded.

다음 몇가지 자격요건은 장로의 판단력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절제하며 자제력이 있어야 하며 존중받을만”해야 합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거나 혹은 주의깊다는 뜻입니다. 주의깊은 장로는 영적인 필요성을 알아차리고 영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 합니다. “자제력이 있다”는 말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것 입니다. 사역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들은 균형이 잡힌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장로들이 그들의 결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지 않는다면 교회는 최근에 유행하는 사역과 신학에 있어 취약하게 됩니다. 장로들은 “존중받을만” – 질서 있고 정중 –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 보다 음주 습관에 적용 됩니다. 금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정한 장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폭력, 술취한 분노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 “술고래”라는 단어를 때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볼때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은 놀랍지 않습니다: 장로는 “폭력적이지 아니하며 오직 온화”해야 합니다. 말로, 육체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폭력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양을 믿고

Qualifications for Elders 7th August, 2016

(1 Timothy 3:1-7; Exodus 18:13-26; Luke 10:29-37)

말길 수 없습니다. 대신 장로는 “온화” – 정중하고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려깊어야 합니다. 물론 장로는 죄에 대해 질책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로는 온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장로는 다정한 목자와 같아야 합니다. 그는 약한 자들과 상처입은 자들을 동정해야 합니다.

Furthermore, an elder must not be “quarrelsome”. Very likely, Paul had the false teachers in mind when he wrote this, for they were starting to cause much trouble, their disputes resulting in “envy, strife, malicious talk, evil suspicions and constant friction” (1 Timothy 6:4-5). An argumentative man is the worst kind of man to have on a Session. When elders discuss the ministry of the church, they need to express their opinions clearly and charitably because the best decisions come from lively discussion. At times, it is even appropriate for objections to be raised. But this must never be done with a contentious spirit.

더 나아가서 장로는 “다투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의 분쟁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다툼” 을 일으켰기 때문에 (딤후 6:4-5) 바울이 이들을 생각하며 이 구절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회에 세우기에는 가장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결정은 적극적인 의논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장로들은 교회의 사역에 대해 의논 할 때 그들의 의견을 명확하고 너그럽게 나타내야 합니다. 때론 반대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적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쟁을 초래할 태도로 반대의견을 내서는 안됩니다.

Nor must an elder be “a lover of money...”. Most of chapter 6 of 1 Timothy is taken up with issues of wealth and poverty. Issues related to money come up often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There have been and continue to be men (like some televangelists and others) who try to use the ministry for financial gain. Being rich does not disqualify a man from the eldership, but it does not recommend him for it, either. What matters is how he uses his money, and especially how much affection he has for it. The writer of the letter to the Hebrews warns, “Keep you life free from love of money, and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13:5). It is this kind of contentment a man must have to serve as an elder in the church.

또 장로는 “돈을 사랑” 하면 안됩니다. 디모데전서 6 장의 대부분은 부와 가난에 대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돈에 대한 문제들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역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몇몇 텔레비전 전도사와 같은 사람들) 이 존재했고 또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를 누린다고 해서 장로가 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장로로 추천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13:5) 라고 경고합니다. 교회의 장로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The Elder’s Duties (장로의 의무)

Most of the qualifications on Paul’s list explain who elders are rather than what they do. This is because “the usefulness of an elder will depend in the long run more on his character than on his gifts and knowledge”. But there are 2 requirements here that show us something about the duties of an elder. The first is that elders are to be “hospitable”. Literally they are to show “love for strangers”. This is helpful for our ministry here at CPC since part of the way we show hospitality to students (and others) from Korea and Japan is to welcome them and help them adjust to life in Melbourne, Australia. Being hospitable is a requirement of all Christians (Romans 12:13; 1 Peter 4:9), but the congregational leaders were to give the lead in meeting the social and travelling needs of fellow-Christians in the early church (Hebrews 13:2; 3 John 5-8). This meant offering bed and board to Christians travelling around the Roman empire (Acts 16:14f; 21:7f; 28:13f). So today, as they have opportunity, elders should take the lead in entertaining missionaries and Christian

Qualifications for Elders 7th August, 2016

(1 Timothy 3:1-7; Exodus 18:13-26; Luke 10:29-37)

workers. The underlying principle is that elders must make a personal commitment to the worldwide work of the gospel. Hospitality - which would also include taking someone out for a meal or coffee - can also be a means of evangelism or pastoral care.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자격요건의 대부분은 장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다는 장로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그의 은사와 지식보다는 그의 성품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로의 임무에 대한 조건도 2 가지가 나옵니다. 첫번째로 장로는 “나그네를 대접”하여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낮선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여기 캔터베리 장로교회의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사람을 대접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한국과 일본에서 온 학생(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호주 멜번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대접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요건 입니다 (롬 12:13; 벧전 4:9),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른 크리스찬들의 사회적인, 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데 앞서야 했습니다 (히 13:2; 요삼 5-8). 이것은 로마 제국을 여행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행 16:14f; 21:7f; 28:13f).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기회가 있다면 장로들은 선교사들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대접하는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칙은 장로들은 세계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헌신을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대접 - 식사나 커피 초대 포함 - 은 전도나 목회자의 돌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This brings us to the qualification that lies closest to the heart of the elder's work. He must be "able to teach". An elder must have wisdom, said Calvin, "in knowing how to apply God's word to the profit of the people". As far as teaching is concerned, most Presbyterian churches follow 1 Timothy 5:17 in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teaching and ruling elders. All the elders direct the affairs of the church - some concentrate on teaching and preaching. Typically, the principal work of the minister is to teach the Bible. A minister may do many other things as well. He may use his gifts in leading worship, discipleship, pastoral care, administration and so on. But first and foremost the minister is a bible teacher, and thus in some way he exercises the ministry of God's Word in every aspect of his calling. However, this qualification is for ruling elders as well. Their teaching may take place in a variety on contexts, which for some, but not all, may including preaching, as well as home Bible studies and other groups. They also teach whenever they disciple, make pastoral visits or evangelise. In his letter to Titus, Paul said that elders must be able to "encourage others by sound doctrine and refute those who oppose it" (Titus 1:9).

이것과 함께 장로의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이어집니다. 장로는 “가르칠 수”있어야 합니다. 장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게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칼뱅은 말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디모데전서 5:17 을 따라 가르치는 장로와 관리하는 장로를 구별합니다. 모든 장로들은 교회의 일을 지휘합니다 - 몇몇은 가르침과 설교에 주력합니다. 보통 목사의 주된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 입니다. 또한 목사는 많은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 인도, 제자훈련, 목회자로서의 돌봄, 관리 등 을 하는데에 그의 은사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명 안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행합니다. 이 자격요건은 관리하는 장로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설교를 포함할 수도 있고 성경공부나 다른 모임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훈련을 할때도, 심방을 가거나 전도를 할 때에도 가르침이 있습니다. 디도에게 쓰는 편지에 바울이 장로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딤후 1:9).

4. The Elder's Family (장로의 가족)

A man does not become an overseer overnight. Rather eldership is a calling and task that requires prior experience. The most important place for an elder to get this experience is at home: "he must manage his own family well, and see that his children obey him with proper respect" (v. 4). The family life of an elder should be exemplary. The same must be true of a man's relationships at work, or in other areas of public involvement. Leadership in these area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bachelor elders, who do not have the full benefit of family relationships as a proving ground for ministry. The Greek word translated "manage" has two primary meanings. One is to supervise, and the other is to nurture or be concerned. The father is the leader who governs the household, but the way he does this is by caring for the needs of each family member. Elders do the same thing in the household of God: they exercise their spiritual authority both by governing and by caring.

What does it mean for the overseer to "see that his children obey him"? How can a father encourage his children to be obedient? Here Paul gives us a hint: "with proper respect". Obviously it refers to the way the children treat their father. But it also describes the way the father relates to his children - he treats them like people made in the very image of God, and therefore he promotes a relationship of mutual respect. The best way to grow obedient children is not to control or manipulate them, but to respect them. This means being fair, consistent, sympathetic and merciful. The importance of an elder's family life is obvious: "If anyone does not know how to manage his own family, how can he take care of God's church?" Obviously, a man has to have his own house in order before he can keep God's house in order. The word used for "manage" in verse 5 is rich in its practical implications. It appears only one other time in the New Testament. Jesus used it when he told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We are told that the Samaritan had compassion on the Jewish man who had been mugged and left for dead. He attended to his wounds, took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The Samaritan is a beautiful example for fathers and elders. Taking care of people always demands sacrifice. It includes compassion, healing and embrace. Doubtless the Samaritan had his own busy schedule with a long list of things he need to get done. But good neighbours - like good fathers and good elders - are willing to be inconvenienced by other people's problems.

감독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장로의 자리는 사명이고 경험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경험을 쌓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집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4 절). 장로의 가정 생활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또는 다른 사회적인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간에서의 리더십은 가족들간의 관계를 시험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미혼 장로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다스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리스 단어는 기본적으로 2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감독을 한다는 것, 또 두번째는 양육하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다스리는 지도자 이지만 그 다스리는 방법은 가족 한명한명의 필요한 부분을 신경써 주는 것 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행합니다: 다스리고 보살핌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실행합니다. "자녀들로...복종하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복종할 수 있게 설득시킬까요? 여기에서 바울은 힌트를 줍니다: "모든 공손함으로". 분명히 이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 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를 설명하는 것 이기도 합니다 -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로 대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장려합니다. 이것은 공평하고, 한결같고, 동정하며 자비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의 가정생활의 중요성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의 집의 질서를 잡기 전에 그 가정의 질서가 잡혀있어야 합니다. 5 절에 나온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의미가 풍부합니다. 신약에는 딱 한번 더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때

Qualifications for Elders 7th August, 2016

(1 Timothy 3:1-7; Exodus 18:13-26; Luke 10:29-37)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채로 버려진 유대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버지들과 장로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은 항상 희생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동정, 치유, 그리고 받아들여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바쁜 일정이 있었을 것이고 해야할 일이 많았을 것 입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 – 좋은 아버지들과 좋은 장로들 – 은 다른사람의 문제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5. The Elder's Experience and Reputation (장로의 경험과 평판)

The last two requirements are not simply for the church, but also for the good of the elder himself. First, “he must not be a recent convert, or he may become conceited and fall under the same judgment as the devil” (v. 6). This qualification has to do with spiritual maturity. In examining a man for eldership, a church should count his spiritual age, not his biological age. A young man in his late 20s or early 30s who has known the Lord from childhood is hardly a recent convert. A new convert may be full of zeal but he is not ready to be an elder. The Greek word for “become conceited” originally referred to something that was filled with smoke. It is sometimes taken to mean “puffed up with conceit”. New converts may grow so fast in the Christian life that they may be tempted to look down on others. Yet pride is the most dangerous of character traits in an elder, who must be the servant of all. There is another way to understand the reference to smoke, however. The danger may be that a new convert will become clouded in his judgment. The smoke of false doctrine can be blinding. In all likelihood, one of the problems with the false teachers in Ephesus was that they were new believers, which helps explain why Paul gave this qualification for elders.

마지막 두 요건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위한 것 이기도 합니다. 첫번째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6 절). 이 자격조건은 영적인 성숙함에 대한 것 입니다. 교회가 장로의 자리에 설 사람을 검토할 때 생물학적인 연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나이를 봐야 합니다. 어렸을때부터 주님을 알고 자란 20 대 후반이나 30 대 초반의 청년은 새로 입교한자가 아닙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은 열정이 넘쳐날 수는 있지만 장로가 될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여짐” 의 그리스 단어는 원래 연기로 가득 찬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가끔 “자만으로 가득 참”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기도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들이 기독교적 삶에 있어서 너무 빠른 성장을 할 경우에 남을 깔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는 모두의 종으로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자만함은 장로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성격상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연기에 대한 언급을 다른식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 입니다. 잘못된 교리의 연기는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장로의 자격요건으로 준 것은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의 문제중 하나가 그들이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Secondly, and as a final qualification, Paul says, “he must also have a good reputation with outsiders, so that he will not fall into disgrace and into the devil's trap” (v. 7). The qualification is a reminder that the church is in the world, and that in the ordination of elders, some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non-Christian public. This may explain why many of the qualifications Paul gives for elders represent the highest virtues of pagan (secular) culture. An elder must have excellent references outside as well as inside the church. If people do not think highly of a church's leaders, they will not think highly of the church. The church has enough critics and detractors already without putting unqualified men (in terms of 1 Timothy 3:1-7) of dubious reputation into the eldership. John Chrysostom, the church father from Constantinople, made an excellent observation about the verse. He pointed out that although Paul and the other apostles were often persecuted,

Qualifications for Elders 7th August, 2016

(1 Timothy 3:1-7; Exodus 18:13-26; Luke 10:29-37)

they were never brought up on morals charges. The way the apostles lived made the message - not the messenger - the issue. Surely this is an example, not just for elders, but for every believer. How easy it would be to win the world for Christ if every believer behaved like a true follower of Jesus. As it is, we find ourselves having to defend the followers of the gospel as often as we defend the gospel itself.

두번째로, 또한 마지막 자격요건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7 절). 이 요건을 통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고 장로 서임에 있어서는 크리스찬이 아닌 대중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준 장로의 자격요건이 이교도의 (세속적인) 문화의 가장 높은 도덕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의심스러운 평판을 받고 있는 자격없는 (딤후 3:1-7 을 보았을때) 사람을 장로의 자리에 세우지 않더라도 이미 교회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교부인 존 크리소스톰이 이 구절에 대한 훌륭한 관찰을 했습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종종 핍박을 당했지만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 기소당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사도들은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사람에게 본이 됩니다. 모든 믿는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처럼만 행동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이기는 것이 굉장히 쉬울 것 입니다. 현재로서는 복음 자체를 변호하는 것 만큼이나 자주 같은 믿는 자들을 변호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됩니다.

The qualifications Paul gives for elders end on an ominous note, with two references to the great enemy, Satan. If new converts are rushed into office, they may “fall under the same judgment as the devil”. Or an elder with a bad reputation may “fall into disgrace and into the devil’s trap”. These warnings lead us to an obvious conclusion: Satan is out to get the elders of the church. What better way to frustrate God’s plans for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an to overthrow the elders he has appointed to lead it? By making mention of the devil, Paul reminds elders to be on their guard. Watch out for temptation. Use good judgment. Defend sound doctrine. Be peaceable. Take care of your family. Resist the devil. At the same time, Paul’s warning is a reminder to every Christian to pray urgently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who are subject to very intense spiritual warfare.

바울이 말하는 장로들의 자격요건은 가장 큰 적인 사탄을 언급함으로 불길하게 마무리 됩니다. 새로 입교한 자들이 무모하게 직위를 맡게 되면 그들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판이 좋지 않은 장로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장로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을 방해하는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라고 세우신 장로들을 쓰러뜨리는 것 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를 언급함으로써 바울은 장로들에게 항상 경계하라고 다시한번 알려줍니다. 유혹을 주의하라. 신중히 판단해라. 건전한 교리를 지켜라. 평화로워라. 가족을 돌봐라. 마귀를 물리쳐라. 동시에 바울의 경고는 치열한 영적 전쟁가운데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크리스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Please pray urgently and regularly for the elders here at Canterbury and pray, too, that the Lord would call and raise up one or two more later this year to join us in the crucial work of shepherding God’s flock here at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Qualifications for Elders 7th August, 2016

(1 Timothy 3:1-7; Exodus 18:13-26; Luke 10:29-37)

캔터베리 교회의 장로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올해 말에 캔터베리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목자로서의 중요한 일을 맡을 한두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